

# 한글로 환생한 팔만대장경 전산화 박차

동국역경원



박서를 만드는 사람들

합천 해인사에 보관돼 있는 목판 팔만대장경은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알고 사랑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목판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환희심을 줄 정도다. 그렇다고 팔만대장경의 아름다움이 그 외형에만 있을까. 구슬과 같은 8만 4000자가 그 속에서 꿈틀거린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전도 읽지 않으면 소용 없다. 그렇다고 그 모든 한자를 읽자니 머리부터 아프다. 그 어마어마한 경전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옮기는 작업은 경전의 보배로움을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 일을 해내는 곳이 바로 동국역경원(원장 원운, 이하 역경원)이다.

대장경 한글화사업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낸 동국역경원 연구원들. 이들은 언제나 진지한 논의를 통해 역경사업의 앞길을 비추고 있다.

2월 19일, 서울 중무로역에서 동국대 후문으로 올라가다 보니 학교테니스장 옆에 웬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다. 현재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이 건물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물어보니 열이면 열, 고개만 가우뚱 거릴 뿐이다. 결국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역경원'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들이 몇 개 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역경원과 조우한 것이다. 누가 알든 모르든, 역경원원들은 이날도 치열하게 경전을 들여다보며 작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역경원은 1964년 3월 설립됐다. 지금은 아는 사람만 아는 기관이지만 설립 초기에는 열의가 대단했다.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옮기는 기관이라니, 엄청난 일을 수행하는 곳이라 관심 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고지원금은 물론 교재 각처에서 후원금까지 밀릴듯 밀려들었다. "당시만 해도 사회지도층에 불자가 많았어요. 또 책이 귀한 때라 불자들이 경전 한 권 갖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역경원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종린 연구원의 말이다. 이 말마따나 재가불자들의 기대감은 실로 엄청났을 것이다. 역경사업 자체가 한자에 통달한 학자나 스님들만 읽을 수 있었던 경전을 대중화시키겠다는 선언이었을 테니. 그렇게 1980년까지 역경원은 80권의 한글대장경을 출간하며 신바람 나게 한글대장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련은 있게 마련이다.

역경사업이 한두 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라는 점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에서도 중단에서도 역경사업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져 갔다. 몇 차례 지지부진하게 역경 사업이 중단이던 중단을 되기도 했다. 그런 지난한 세월을 이기고 2000년 완간된 것이 총 318권에 달하는 <원역 한글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 역경사업을 마쳤다면 역경원은 소임을 끝낸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역경원에서는 요즘 한글대장경의 오역과 오·탈자를 걸어내는 개정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경을 하다 보니 작업이

## 수행에 가까운 작업...역경기반 아직 열악

다소 거칠게 이뤄진 부분이 있어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요즘 역경원 홈페이지(www.tripitaka.or.kr)에 접속하면 대장경의 내용을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글화 작업에서 나아가 시대에 맞게 전산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0년까지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48권까지 작업을 마쳤다. 이렇게 한국사적으로도 가치가 큰 중요한 일을 해낸 기관에 틀림없지만 역경원에 대한 대우는 말이 아니다. 역경원은 현재 종단 산하기관도, 학교기관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역경원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

했다. 이사도 잦았다. 박종린 연구원이 기억하는 것만 7-8회에 달한다. 그러는 사이 자료도 소실됐을 것이다.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사람 문제다. 박종린 연구원처럼 25년이나 역경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깝다. 역경사업을 하려면 한자와 번역에 능숙한 고급인력이 필요하지만 부정이 심하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직장,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저야 이 과정을 수행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후배들이 나가려 할 때는 차마 붙잡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남으라고만 하겠습니까." 어떤 뚜렷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도 역경원은 한걸음씩 힘들게 나아가고 있다. "불자들이 말과 글을 소홀히 하는 풍도가 참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경원이 왜 필요한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공감의 부족합니다. 역경원은 경전을 정리하고 모든 해설서의 근간이 되는 통일경전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이 있어야 응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몽고 침략 시기의 고려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들은 하나의 획을 가다듬고 정리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며 부처의 외호를 바라 마지않았을 것이다. 그 정신이 엄청난 세월을 뛰어 넘어 경전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다. 시대가 변해도 경전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정신은 남아있다. 역경원이 오늘날 하고 있는 일의 참다운 의미는 경전을 지키고 현재에 쓰일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정신의 계승에 있지 않을까 싶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 내 인생의 불서 한권



양치는 성자  
백운스님 | 도서출판 한강수 | 1993년  
정복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

## 읽고 또 읽으며 '검슨' 배워

'내 종교는 불교'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고등학교 때였을 것이다. 엄마의 죽음과 함께 고향인 속초로 낙향하게 된 그 시절, 때마침 전학 간 학교에 처음으로 불교학생회가 창립되었다. 그곳에 가입해 내 마음을 위로 받은 인연이 불교를 접하게 된 동기라면, 내 생활 속에서 불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신바람 나게 지낸 시기는 서울 법륜사 청년회 시절이었던 것 같다. 그 무렵의 내 생활은 모두 법회일인 수요일이 기준점이었다. 그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얼굴에



스님은 온 증생들 어린 양으로 보고 그 양들을 건지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았다고 보인다. '결제와 해제를 가리지 않고 장좌불와로 정진하면서도, 매일 적멸보궁에 참배하러 가는 것을 자신의 공식적인 일과로 삼고' 있었던 스님의 상원사 생활을 통해 나는 수행생활에서 검슨을 배웠다. 스님에 대한 많은 일화 중 하나인 평양에서의 보살행이다. '요중공부(要中工夫)'로 평양스님은 평소 길을 걸으면서 서 으레 '이 뭇고?' '이 뭇고?' 라고 중얼거리며 다녔으니 '이 뭇고'를

## 불교 접한 인연으로 내 생활에 많은 부분 변화 욕심내어 받은 책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좋아

미소가 지어진다. 무엇이 좋아 그리 열심히 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리 돌아봐도 후회가 없는 그 시간, 그때의 인연은 지금도 내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웃음 짓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그 시절 만난 한 권의 책 때문이다. 어렵게 찾아낸 기억으로는 그 당시 지도법사스님께서 우리에게 법보시하신 것으로 볼까라 하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기에 욕심으로 받았다. 그 책은 <양치는 성자>다. <양치는 성자>는 서산대사로부터의 발을 전수 받은 평양 언기선사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것이다. 12살 어린나이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한 언기 스님은 전성 후 보림하는 장소로 목장을 택해 양치기 머슴일을 시작했다. 스님은 이 일을 하면서 평범한 양치기로 만족하지 않고 수행의 과정으로 삼았다. 이는 자신의 일생의 지표와도 같은 법호를 평양(襄陽)이라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먹고'로 알아들은 평양 사람들은 편양 스님을 '이 먹고노장'이라 불렀으며, '이 먹고노장'의 일화는 평양 3대 신화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이 편양 스님은 우리에게 보현보살로 나투시어 가르침을 주고 가신 분이라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가끔 <양치는 성자> 편양 스님의 일대기를 생각하며 시장바닥에 앉아 있기 위하여 짐짓 숯장수 노릇을 하고 있지만 숯을 사러오는 손님들을 맞거나 공부할 법사리 여일치 않아 '순일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다시 쌓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편양 스님의 마음자리를 그려볼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금생에 어떤 복을 지어야 하나.' <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 > <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철(대우천,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전라도 : 010-2311-0157  
강원도 : 019-396-1110    경상도 : 011-327-7697  
충청도 : 010-8674-23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弘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인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해삼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 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 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